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 성별 간 다집단 분석

김 보 미 이 은 지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427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단순매개 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와 자기통제력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즉, 여성의 높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을 예측하며, 이것이 자기통제력과 연합되면서 공격성 저하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기제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개입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공격성,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에 따르면 국내 화병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대 청년의 발병률에서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다. 2013년 767명이었던 20대 화병 환자는 2017년 1,483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으며(국민일보, 2018), 최근 조사에서 심한 울분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역시 20, 30대 청년층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겨레, 2019). 화병과 울분을 경험할 경우 분노가 부적절하게 폭발하여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데,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현 20대는 공정성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공격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공정성 인식과 공격성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Anderson & Bushman, 2002)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외적인 공격 행동을 의미하는 신체적 공격성, 모욕, 조롱, 비난 등 언어적 위협을 뜻하는 언어적 공격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따돌리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Archer & Coyne, 2005; Ostrov & Houston, 2008). 공격성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있을 뿐 아니라(Fite, Colder, Lochman, & Wells, 2007; Morsunbul, 2015; Yen et al., 2010), 공격성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공격성을 완화하는 요인과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며 성인기 중 20대에 공격성의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메타분석 결과에 근거하여(Archer, 2004), 공격성 기제에서의 잠재적 성차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한 변인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다. 공정세상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은 세상은 공정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믿음을 말한다(Lerner, 1980). 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이 정당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 기능(motive function), 미래에 타인에 의해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 기대하게 하는 신뢰 기능(trust function),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동화 기능(assimilation function)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Dalbert, 2001). 이와 같은 적응적 기능으로 인해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신념을 보호하여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게 된다(Ucar, Hasta, & Malatyali, 2019).

공정세상신념은 대상에 따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으로 구분된다(Lipkus, Dalbert, & Siegler, 1996). 개인적 공정세상신념(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이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일반적 공정세상신념(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공정하다는 믿음을 말한다.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하다(Sutton, Stoeber, & Kamble, 201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은 반사회적 행동 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ègue &

Muller, 2006).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아(Bègue & Muller, 2006; Sutton & Winnard,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만 초점을 두었다. 한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성차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다. 서구 연구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Dalbert, 2001), 국내 및 케냐 청소년 연구에서는 남성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서수지, 2018; Thomas & Mucherah, 2016).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불공정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공정세상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동기를 가진다. 이들은 불공정성의 정도를 최소화하거나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등의 인지적 전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정세상신념에 동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완화시킨다(Bartholomaeus & Strelan, 2019; Bègue & Muller, 2006; Dalbert, 2002). 분노는 불공정성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정서로(Dalbert, 2002)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공격성, 비행의도, 또래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불링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Bègue & Muller, 2006; Correia & Dalbert, 2008; Desrumaux, Gillet, & Nicolas, 2018; Donat, Rüprich, Gallschütz, & Dalbert, 2020; Sutton & Winnard, 2007).

공격성을 완화하는 또 다른 대표적 변인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다. 자기통제력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생각, 욕구 및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일반적으로 여자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자기통제력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Chapple, Vaske, & Hope, 2010), 남성과 여성은 자기통제력의 유사한 발달 패턴을 경험함으로써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성차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된다(Jo, & Bouffard, 2014). 자기통제력은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과소비, 흡연 등 다양한 행동 문제와 부적 관련이 있으며(Muraven, Collins, & Neinhaus, 2002; Tangney et al., 2004; Vohs & Faber, 2007), 범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도 하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또한 자기통제력은 충동적 행동을 자제하고 폭력 행위를 통제하도록 도움으로써 공격성이 완화되도록 촉진한다(Denson, DeWall, & Finkel, 2012). 선행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은 일관되게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Li, Nie, Boardley, Situ, & Dou, 2014; Tangney et al., 2004).

한편, Lerner(1997)의 정의 동기 이론(justice motive theory)에서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개인적 계약(personal contract)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한 개인은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며 자신도 스스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Dalbert, 2001). 이는 더 나아가 사회적인 규칙을 따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Tian, 2019). 규칙 준수 및 목표달성과 자기통제력의 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Gottfredson & Hirschi, 1990),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자기통제력에 기여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의 의미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제로(박선영, 권석만, 2012), 일반적으로 여

성이 남성보다 삶의 의미 수준이 더 높다 (Morgan & Robinson, 2013).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 및 노력인 ‘의미 추구’와 삶을 의미 있게 경험하는 느낌인 ‘의미 발견’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삶의 의미 발견은 삶의 만족도, 안녕감, 행복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Doğan et al., 2012; Steger et al., 2006), 삶의 의미 추구는 의미 추구 이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는 견해와 의미 추구 자체가 긍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견해가 공존한다(Cohen & Cairns, 2012; Mok, Lai, & Zhang, 2004).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는 의미 발견을 통제된 후에는 의미 추구하고 삶의 만족도 또는 안녕감 간의 상관은 사라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에만 초점을 두었다.

한편, 아직까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외상적 사건으로부터의 성장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에 기반하며, 의미 만들기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로움을 찾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설명(Nolen-Hoeksema & Davis, 2002)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를 예측할 것임을 시사한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에서의 도전을 장애물이 아닌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라보게 하며, 인생의 다양한 사건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돕는 개념적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Dalbert, 2001; Donat et al., 2016) 세상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각하도록 돕고 유능감과 통제감을 향상시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촉진시킨다(Tian, 2019). 따

라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미 간의 정적 상관(Bègue & Bastounis, 2003)을 넘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MacKenzie와 Baumeister(2014)는 삶의 의미가 자기통제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의미가 있을 경우 개인이 장기 목표와 문화적 기준에 따라 생각하며, 순간적인 충동을 초월하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다(Li et al., 2019). 실제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Copeland 등(2020)의 연구에서 삶의 의미 추구는 자기통제력을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삶의 의미 발견은 자기통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실존적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경험하는 개인은 쾌락 추구 또는 범죄 행위를 통해 무기력, 공허감 등의 증상을 해결하고자 한다(Frankl, 1963; 김자경, 손정락, 2007에서 재인용). 김자경과 손정락(2007)은 삶의 목적 수준이 낮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미치료를 실시하여 비행충동이 감소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Lin과 Shek(2019)의 홍콩 청소년 대상 종단 연구에서는 7학년 때의 삶의 의미 발견 수준이 12학년 때의 위험행동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격성과의 관계는 아직 모호한데, van Tilburg 등(2019)이 성인을 대상으로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 성향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결과와 두 변인 간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가 공존하여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 성향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성의 경로를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대학생이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의 수준을 높이고,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공격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의미 발견과 공격성의 관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두 변인의 직접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이때, 20대의 공격성에서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Archer, 2004)에 기반하여 공격성의 구체적 기제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공격성을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10~11월에 전국의 대학생 46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중복 응답 및 불성실 응답 37부를 제외하여 총 42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성 276명(64.6%), 남성 151명(35.4%)으로, 평균 연령은 22.12세($SD=1.85$)였다.

측정도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Lipkus 등(1996)이 개발한 공정세상신념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손정아(2015)가 번안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정세상신념 척도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예. 나는 이 세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과 일반적 공정세상신념(예. 나는 이 세상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한다)의 각각 8문항씩 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서 요인부하량이 .24로 추정된 문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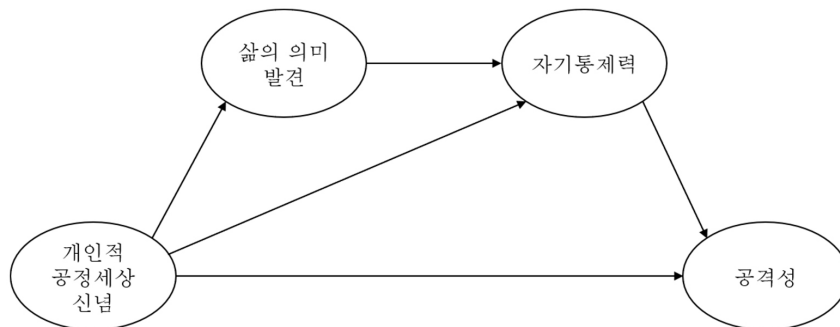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제거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강함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손정아(2015)의 대학생 연구에서 .84,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삶의 의미 발견

Steger 등(2006)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원두리 등(2005)이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의미 추구 5문항(예.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미 발견 5문항(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 발견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7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원두리 등(2005)의 대학생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

Tangeny 등(2004)이 개발하고 최화영(2015)이 번안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the Brief Self-Control Measu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최화영(2015)의 대학생 연구에서 .76,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성인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대개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등 공격성의 일부 측면만을 측정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으로 개발된 공격성 도구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권석만, 서수균(2002)이 타당화한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의 신체적 공격성 9문항(예.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언어적 공격성 5문항(예.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을 사용하였다. 이때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낮은 신체적 공격성 한 문항과 언어적 공격성 두 문항을 제거하여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임을 의미한다. 배라영과 최지영(2018)의 대학생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각각 .79와 .71이었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와 Crick(1998)이 개발하고 배라영과 최지영(2018)이 타당화한 자기 보고식 공격성 및 사회적 행동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Social Behavior Measure) 중 주도적/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3문항(예. 나는 악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대해 소문을 퍼트린 적이 있다)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4문항(예.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질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그 사람의 평판을 손상시키려고 한 적이 있다)으로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라영과 최지영(201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1과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두 척도를 통합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자료분석

먼저, SPSS 22.0으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모형 추정을 위해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 모두 요인 알고리즘 방식으로 문항 묶음을 진행하였으며,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은 세 개, 공격성은 네 개의 지표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Mplus 7.0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변인들 간 관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구조모형도 추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성차 및 상관분석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집단 t검증, 변

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차이 검증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t=2.07, p<.05, d=.21$)과 공격성($t=3.96, p<0.001, d=.41$)이 남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력은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남녀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의 의미 발견(남: $r=.38$, 여: $r=.49, p<.01$), 자기통제력(남: $r=.36$, 여: $r=.24,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공격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남: $r=-.31, p<.05$, 여: $r=-.18, p<.01$)을 보였다. 또한 남녀 모두 삶의 의미 발견은 자기통제력(남: $r=.37$, 여: $r=.43, p<.01$)과 정적 상관을, 공격성(남: $r=-.22$, 여: $r=-.18,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남: $r=-.26$, 여: $r=-.2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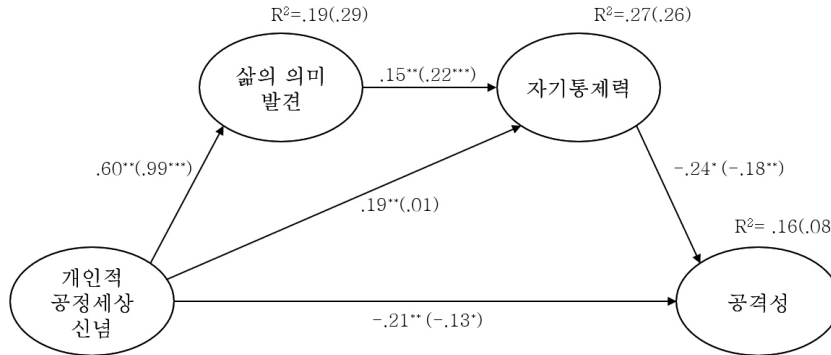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단변량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측정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성차 및 상관관계 (남: 151명, 여: 276명)

변인	1	2	3	4	
1.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2. 삶의 의미 발견	.38**(.49**)	-			
3. 자기통제력	.36**(.24**)	.37**(.43**)	-		
4. 공격성	-.31*(-.18**)	-.22**(-.18**)	-.26**(-.21**)	-	
M(SD)	남성	4.16(.88)	4.71(1.17)	2.91(.64)	1.93(.66)
	여성	3.99(.75)	4.59(1.26)	2.92(.67)	1.68(.58)
t	2.07*	.93	-.15	3.96***	

주. 상관분석에서 남성(151명)은 괄호 밖, 여성(276명)은 괄호 안에 표기함. *** $p<.001$, ** $p<.01$, * $p<.05$



주.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2. 성별 집단 간 구조모형 (괄호 밖: 남성, 안: 여성)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이하로 측정변인 모두 정규성 가정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이어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223.871(df=136, p<.001)$, CFI=.973, RMSEA=.055(90% CI: .042-.068), SRMR=.053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남성 집단 .70~.89, 여성 집단의 경우 .71~.92로 Fornell과 Larcker(1981)의 .50 초과 기준을 충족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보했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남성 집단 -.23~.54, 여성 집단 -.35~.44로 나타나 Kline(2011)의 .90 미만 기준을 충족하여 변별 타당도 역시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10개의 측정변인이 4개의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전반적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70, RMSEA=.055[90% CI: .042-.067], SRMR=.037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남녀 간 모형이 동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Bollen(1989)과 Kline(2011)의 제안에 따라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경로계수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의 형태동일성 모형을 추정한 결과, $\chi^2=195.636(df=120, p<.001)$, CFI=.977, RMSEA=.054[90% CI: .040-.068], SRMR=.043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요인 구조가 동일하다는 형태동일성 가정이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이 같은 요인 구조를 지녔는지 확인하였다. 측정동일성 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를 비교한 결과, $\Delta\chi^2(9)=13.31, p=.15$ 로 측정동일성을 만족하여 남녀 집단 간 동일한 구조모형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미 발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자기통제력 간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만 남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삶의 의

표 2. 기저모형과 경로계수에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들 간 남녀 집단 차이 비교

경로	χ^2	df	CFI	SRMR	RMSEA (90% CI)	$\Delta\chi^2$	Δdf	p
형태동일성	195.636	120	.977	.054	.054 (.04-.068)	-	-	-
측정동일성	208.946	129	.976	.053	.054 (.04-.067)	13.31	9	.15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공격성	209.738	130	.976	.054	.054 (.04-.067)	.792	1	.3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214.459	130	.974	.062	.055 (.042-.068)	5.513	1	<.05
경로계수 동일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213.013	130	.975	.055	.055 (.041-.068)	4.067	1	<.05
자기통제력 → 공격성	209.194	130	.976	.053	.053 (.04-.066)	.248	1	.62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210.293	130	.976	.054	.054 (.040-.067)	1.347	1	.25

미 발견의 경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자기통제력의 경로는 남성에게서만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단순매개효과,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력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원자료에서 10,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표 3). 분석 결과, 남성 집단의 경우 단순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집단의 경우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성별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남 성 별 여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62	-.131	.00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31	-.069	.00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02	-.034	.030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 삶의 의미 발견 → 자기통제력 → 공격성	-.051**	-.089	-.014

주. **p < .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력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089~-.014). 즉 여성의 높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삶의 의미 발견을 예측하고, 이것이 자기통제력과 연합되어 공격성 저하에 기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남녀 모두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 경우, 다양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불공정한 경험을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동화시킴으로써 분노를 완화시키고, 공격적인 반응을 덜 보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공격세상신념이 공격성,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는 선행연구(Bègue & Muller, 2006; Desrumaux, Gillet, & Nicolas, 2018; Donat, Rüprich, Gallschütz, & Dalbert, 2020)와 일치한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자기통제력을 예측하는 효과는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였지만, 여성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 경우, 자신이 공정한 대우

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노력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계약 기능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동기를 제공하여 (Tian, 2019)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강할수록 자기통제력을 발휘하기 쉽다. 그러나 여성 집단에서 이와 같은 개인적 계약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성들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는 무관하게 자기통제력을 강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Gottfredson과 Hirschi (1990)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초기 사회화의 결과로 발달한다. 젠더화된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의 경우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 용인되는 반면, 여성은 위협하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회피하고 억제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를 요구받으며(Hagan et al., 1987),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는 무관하게 자기통제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자기통제력이 강할수록 공격성 수준은 낮아졌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Li, Nie, Boardley, Situ, & Dou, 2014; Tangney et al., 2004),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고 폭력적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공격성의 수준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남녀 모두의 삶의 의미 발견 수준을 높이지만, 이 관계는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였다. 비록 여성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남성보다 더 낮았지만,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공정성의 효과를 높여 여성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더 강한 효과를 발휘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은 남녀 모두에서 삶

의 의미 발견 수준이 높을수록 강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 발견이 자기통제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연구 결과(이대중, 하정, 2020; Copeland et al., 2020; Li et al., 2019)와 일치한다. 성공적인 자기통제를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미가 존재해야 한다(신수경, 민윤기, 2011). 삶의 의미 발견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Baumeister & Vohs, 2002), 삶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행동함으로써 충동을 억누르는 자기통제력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 발견, 자기통제력의 이중매개효과는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강화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고, 자기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는 남성에게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의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여성들이 처한 불공평한 사회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개인이 자라 온 환경과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Lerner, 1980).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성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 자체를 낮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며(김은하, 박한솔, 2018), 이는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의미 결여, 자신을 그러한 불합리한 현실과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통제해야만 한다는 동기의 결여, 더 나아가 공격성까지 초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이 더 공정하다고 여기는 남자 대학생의 경

우에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자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자 대학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삶의 의미 발견과 자기통제력의 이중매개효과는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서는 삶의 의미 발견 및 자기통제력에 대한 개입 또한 효과적일 것이다.

김은하와 정보현(2018)은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지적 접근과 수용-전념 접근의 개입을 제언한 바 있다.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예. “세상은 나에게 항상 공정해야 한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인지적 접근을 통해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불공정 상황에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 실현에 집중하되 주어진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므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은하, 정보현, 2018; 차란희, 노안영, 2020).

다음으로,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서는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개입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미치료적 접근은 인간은 상황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지의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의지, 삶의 의미를 가정한다(박선실, 2003). 의미치료적 접근은 이러한 세 가지 기

본 가정을 바탕으로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실존적 공허 상태를 벗어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Crumbaugh(1979)는 삶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내용으로 평생 목표 세우기, 개인의 강점 및 약점 찾기, 갈등 탐색하기, 미래 계획 세우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박선실(2003)은 의미요법 집단상담을 통해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세워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통제력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개입 또한 여자 대학생의 공격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오영(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는 자기관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환경계획, 목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기평가, 목표점수 도달 시 자신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자기 강화로 구성된 자기통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기통제 훈련 치료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충동성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Denson 등(2011)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2주 동안 매일 자기통제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훈련 뒤 분노 유발 상황에서 공격 충동을 통제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덜 보이게 된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공격성 연구가 부족했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대학생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공격성 완화를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의 강력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Denson et al., 2012) 남녀 집단 모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단순매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재검증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남녀 집단 모두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반복적인 불공정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김은하, 박한솔,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과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불공정 경험, 차별 경험, 좌절 경험 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변인을 통제하고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에만 기초하여 측정함으로써 효과의 과대 추정 문제(shared method bias)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격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특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변인의 보고를 함께 수집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변인 간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 및 구체적인 기

제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8. 7. 26). ““속 답답하고 울컥”... 10·20대 화병 급증”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3531&code=61121911&cp=nv>에서 검색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5), 25-45.
- 김은하, 박한솔 (2018). 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29-449
- 김은하, 정보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점화가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삶의 만족도, 가난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323-342.
- 김자경, 손정락 (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1), 1-19.
- 박선실 (2003). 집단적의미요법이 대학생의 삶의 의미발견과 내적의미 실현 및 실존적 극복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선영, 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 서수지 (2018). 공정세상신념과 공격성의 관계: 공격성에 대한 규준적 믿음과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아 (2015). 개인의 지각된 취약성과 공정세상신념이 기부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수경, 민윤기 (2011). 목표 갈등의 해결 과정으로서 자기통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25-542.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이대중, 하정 (2020). 삶의 의미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 149-167.
- 차란희, 노안영 (2020).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25-1345.
- 최오영 (2011). 자기 통제 훈련 프로그램이 온라인 게임 중독 대학생들의 게임 중독 수준, 공격성 및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 (2019. 2. 18). “중증 이상 울분 느끼며

- 사는 한국인, 독일보다 6배 많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557.html 에서 검색
- 한겨레 (2019. 10. 12). “울분 권하는 사회… ‘노오력’ 무시당한 젊은이는 울분에 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47.html 에서 검색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4), 291-322.
- Archer, J., & Coyne, S. M. (2005). An integrated review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3), 212-230.
- Bartholomaeus, J., & Strelan, P. (2019). The adaptive, approach-oriented correlates of belief in a just world for the self: A review of the researc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1, 109485.
- Baumeister, R. F., &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ègue, L., & Bastounis, M. (2003). Two spheres of belief in justice: Extensive support for the bidimensional model of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Personality*, 71(3), 435-463.
- Bègue, L., & Muller, D. (2006). Belief in a just world as moderator of hostile attributional bia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117-126.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3), 303-316.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Chapple, C. L., Vaske, J., & Hope, T. L. (2010).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self-control: An examination of mediation, moderation, and gendered etiologi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6), 1122-1131.
- Cohen, K., & Cairns, D. (2012).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e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13-331.
- Copeland, A., Jones, A., & Field, M. (2020). The associ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harmful drinking is mediated by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control and alcohol value. *Addictive Behaviors Reports*, 100258.
- Correia, I., & Dalbert, C. (2008). School bullying: Belief in a personal just world of bullies, victims, and defenders. *European Psychologist*, 13(4), 248-254.
- Crumbaugh, J. C. (1979). *Logotherapy in action*. New York: Jason Aronson.
- Dalbert, C.(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New York: Plenum.
- Dalbert, C.(2002). Beliefs in a just world as a buffer against anger. *Social Justice Research*, 15(2), 123-145.
- Denson, T. F., Capper, M. M., Oaten, M., Friese, M., & Schofield, T. P. (2011). Self-control

- training decreases aggression in response to provocation in aggressive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2), 252-256.
- Denson, T. F., DeWall, C. N., & Finkel, E. J. (2012). Self-control and agg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1(1), 20-25.
- Desrumaux, P., Gillet, N., & Nicolas, C. (2018).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upervisor support on burnout via bull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11), 2330.
- Doğan, T., Sapmaz, F., Tel, F. D., Sapmaz, S., & Temizel, S. (2012). Meaning in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urkish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5, 612-617.
- Donat, M., Peter, F., Dalbert, C., & Kamble, S. V. (2016). The meaning of students'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for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school-specific well-being. *Social Justice Research*, 29(1), 73-102.
- Donat, M., Rüplich, C., Gallschütz, C., & Dalbert, C. (2020). Unjust behavior in the digital space: The relation between cyber-bullying and justice beliefs and experience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3(1), 101-123.
- Fite, P. J., Colder, C. R., Lochman, J. E., & Wells, K. C. (2007). Pathways from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to substance 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3), 355.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82-388.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 Y., & Bouffard, L. (2014). Stability of self-control and gend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4), 356-36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Lerner, M. (1997). What does the belief in a just world protect us from? The dread of death or the fear of understanding suffering? *Psychological Inquiry*, 8, 29 - 32.
- Li, J. B., Nie, Y. G., Boardley, I. D., Situ, Q. M., & Dou, K. (2014). Moral disengagement moderates the predicted effect of trait self-control on self-reported aggress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312 - 318.
- Li, J. B., Salcuni, S., & Delvecchio, E. (2019). Meaning in life, self-control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olescents: A cross-national study. *Psychiatry Research*, 272, 122-129.
- Lin, L., & Shek, D. T. (2019). The influence of meaning in life on adolescents' hedonic well-being and risk behaviour: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9(1), 5-24.
- Lipkus, I. M., Dalbert, C., & Siegler, I. C. (1996).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belief in a just world, willingness to accommodate and marital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666-677.
- MacKenzie, M. J., & Baumeister, R. F. (2014). *Meaning in life: Nature, needs, and myths*. In A.

- Batthyany & P. Russo-Netzer (Eds.), *Meaning in positive and existential psychology* (pp. 25 - 37). New York, NY: Springer.
- Mok, E., Lai, C., & Zhang, Z. X. (2004). Coping with chronic renal failure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1*(2), 205-213.
- Morales, J. R., & Crick, N. R.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Morgan, J., & Robinson, O. (2013). Intrinsic aspirations and personal meaning across adulthood: Conceptual interrelations and age/sex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99.
- Morsunbul, Ü. (2015). The Effect of Identity Development, Self-Esteem, Low Self-Control and Gender on Aggression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1*, 99-116.
- Muraven, M., Collins, R. L., & Neinhans, K. (2002). Self-control and alcohol restraint: an initial application of the self-control strength model.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6*(2), 113.
- Nolen-Hoeksema, S., & Davis, C. G. (2002). *Positive responses to loss: Perceiving benefits and growth*.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 598 - 606). Oxford University Press.
- Ostrov, J. M., & Houston, R. J. (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9), 1147-1158.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
- Sutton, R. M., Stoeber, J., & Kamble, S. V. (2017). Belief in a just world for oneself versus others, soci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3*, 115-119.
- Sutton, R. M., & Winnard, E. J. (2007). Looking ahead through lenses of justice: The relevance of just-world beliefs to intentions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3), 649-666.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 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Thomas, K. J., & Mucherah, W. M. (2016). How fair is my world? Development of just world beliefs among Kenyan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49*, 244-253.
- Tian, X. (2019). Negative life events and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Belief in a just world as a mediator and moderato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4), 526-534.
- Ucar, G. K., Hasta, D., & Malatyali, M. K. (2019).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control and hopelessness i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3*, 68-73.

- van Tilburg, W. A., Igou, E. R., Maher, P. J., & Lennon, J. (2019). Various forms of existential distress are associated with aggressive tendenc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4*, 111-119.
- Vohs, K. D., & Faber, R. J. (2007). Spent resources: Self-regulatory resource availability affects impulse buy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3*(4), 537-547.
- Yen, C. F., Ko, C. H., Yen, J. Y., Tang, T. C., Chang, Y. P., & Cheng, C. P. (2010).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 aggression perpetrators, victims, and perpetrator-victims. *Comprehensive Psychiatry, 51*(1), 42-48.
- 논문 투고일 : 2020. 12. 14
1 차 심사일 : 2020. 12. 21
게재 확정일 : 2021. 02. 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 and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Bo-mi Kim

Eun-ji Lee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 and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For this research, self-reported data from 427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by gend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dicted aggression regardless of gend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was non-significant among both women and men groups. The mediating effect of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elf-control was significant among only women. It means that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predicted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self-control, which consequently contributed to aggression among women. It is noteworthy tha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rete mechanism to reduce aggression by gender. Based on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ggression,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elf-control*